

'지역 업체 우선 계약'으로 경제한파 극복

남양주시가 관내 업체 수의 계약률을 80%까지 높이고 업체별 수의 계약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다양한 관내 업체를 발굴해 업체의 수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공사·용역·물품의 관내 업체 수의 계약률을 향상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특정 업체와의 관행적 반복 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업체별 수의 계약 횟수를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발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관

관내 수의 계약을 올린 남양주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공사 3회 등 업체별 건수 제한도

대금 신속 지급으로 자금난 해소

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업체 선정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내 업체 우선 계약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공사 발주 시에는 관내 업체의 건설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관내 업체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매월 나라장터에 신규 등록된 관내 업체 현황을 내부 행정망에 공유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관내에 부족한 학술, 교육, 행사, 정보 통신 분야의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등 관내 업체 수의 계약 체결률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은 물론 관내 업체의 수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남양주 슈퍼성장시대'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남양주시 공사·용역·물품의 관내 업체 수의 계약 체결률은 70%(총 1087건 중 760건)였다. 이화우 기자

체납 차량 1만 2130대 번호판 떼러 갑니다

(총 82억 원)

성남시, 2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 4개 영치조 10명 꾸려 주 3회 운용



공무원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영치 대상 차량 1만 2130대(82억 원)에 대해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04대 차량(체납액 34억 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인 5089대 차량(체납액 48억 원)이 해당한다.

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합동의 4개조 10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3회 운용한다.

새벽 시간대(오전 6시~8시)와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낸다.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 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때인

번호판은 영치중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7억 3000만 원을 체납한 763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666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 4000만 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김대성 기자

하남시의회, 현장 의견 수렴해 자동차정비업 지원

강성삼 의장 주제로 간담회 개최

"상생 발전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은 26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자동차전문정비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정책 기조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 의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다수를 이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전문정비업체와 친환경 경차와 상생을 위해 '하남시 자동차전문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강 의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시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이하 '카포스(carpos)') 석창현 이사장을 비롯한 카포스(carpos) 하남시지회 포용식 지회장, 김동훈 교육부회장, 이충덕 총무국장, 김대일 재무국장, 홍성원 편집국장, 권한주 사무국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지원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전을 위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등 26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 관계자들과 정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한 상담 및 진단 지원 ▲친환경 자동차 정비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이다. 강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도 어려움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일거리 감소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상생 발전하기 위해 '자동차 전문정비업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카포스(carpos) 석창현 경기도지회장, 포용식 하남시지회 지회장과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와 함께해온 기존 자동차정비업체가 존속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종사자 교육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김지백 기자



김영식 고양시의회의장(왼쪽)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게 적십자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공

올해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한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 재난구호·공공의료 사업에 쓰일 예정

고양특례시의회는 26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게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식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박진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회장과 김경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위해 온정이 많이 도이기를 희망하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적십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쓰일 예정으로 고양특례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즐거운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들을 꿈꾸게 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을 꿈꾸게 하는 즐거운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우리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에서 경험해 보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미있는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아가 참여하는 활동,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 신고를 한 활동인지 꼭 확인하세요!

